

# 광주·전남 지방선거 벌써 과열... ‘이 대통령 마케팅’ 주의보

대통령실 “정권 초반 부정적 여론, 국민통합에도 역행” 예의주시  
이 대통령 ‘광주 타운홀 미팅’ 정치적 해석·악용 사례 정보 취합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가 몰려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대통령 마케팅’도 극성어서 대통령실이 관련 정황 파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 대통령이 광주에서 첫 진행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일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6·3 조기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고, 최근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물밑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여론조사 기관의 발신자 번호를 유권자에게 알려주면서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식의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재명과 의기투합!”, “이재명의 오랜 동지”, “2010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과 000은 지방 자치와 분권 모델을 만들었다”는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대량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해 시민들의 불만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악용된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관련 휴대 전화 메시지 등을 취합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다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을 하고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호남에서 대통령 마케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엄중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당과도 이를 협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광주 타운홀 미팅의 정치적 해석과 악용 사례에 대한 정보 취합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하는 등 광주·전남을 위한 ‘선물바다’를 풀어 놓았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산단 조성, 규제완화, 재생에너지를 활용가능한 송배전망 구축, AI 모빌리티 신도시(에이모시티) 조성 계획을 밝혔고, 전남 동부권 미래 첨단 산단 조성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은 변함이 없다. 특히 광주·전남도와는 실시간 협의를 하면서 관련 서류 등을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주고받은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날 논의되지 않은 비공개 사안도 많은데 첫 타운홀 미팅이 일부 정치적으로 악용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지난 28일 광주시북구 운정동 국립518묘지 참배후 박관현 열사 묘지 앞에서 박 열사 누나인 행순씨와 5·18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여야 대치 고조...김민석 인준 평행선에 추경도 충돌 예고

상임위원장 선출 두고 갈등 심화

다음달 3일 총리 인준안 표결 예상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충돌한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 모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다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간인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자진 사퇴 요구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인준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되면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

안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며, 30일이 어렵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반드시 인준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을 시사했다.

29일 우 의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민생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주십시오’라는 글에서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국민께서 새 정부·여당을 만들라는 선택을 한 것은 양껏 일해달라는 뜻”이라며 “야당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시급히 일하려는 새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성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는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맞서

고 있다. 소수 야당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여당 독주’ 프레임에 부각하는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야당은 앞으로 줄줄이 열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버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식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호남에 공 들이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

토크쇼·5.18 묘역 참배 이틀째 공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7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본격적인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27일 오후 7시 30분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광주 시민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면 9월 안에 검찰개혁을 위한 4대 법안을 완결하겠다”면서 “추석에 국민에게 민주당의 밥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정진욱(광주 동남 갑)·안도걸(광주 동남 을)·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과 입선속 정 민주당 최고위원,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박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문민 정부 4기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보복 앞잡이 노릇을 한 정치 검찰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골자다. 수사권은 신선했던 중대범죄수사

청(중수청)이, 기소권은 신선했던 공소청이 맡는 방식이다.

이어 2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박 후보는 5·18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검찰개혁 완수로 있겠습니다. 광주시민이 연 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후보의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갑) 광주시당위원장, 정진욱(동남갑), 안도걸(동남을), 조인철(서구갑), 정준호(북구갑), 전진숙(북구을), 박군택(광산구갑) 의원,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동행했다.

정 의원은 윤상원·박관현·윤한봉 열사 묘역 등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곳 5·18 민주묘역을 찾았다”면서 “광주는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광주 시민과 호남인들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이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